

## 영어 초점 발화에서의 원어민과 한국인의 억양 비교\*

- 악센트 해지 현상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Intonation of Focused Sent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Native Speakers

- in the case of deaccentuation -

김 소 희\*\* · 강 선 미\*\* · 옥 유 림\*\* · 김 기 호\*\*

So-hee Kim · Sun-mi Kang · Eu-rom Ok · Kee-Ho Kim

### ABSTRACT

'Deaccentuation' means the phenomenon that the accent on the particular element which deserves to be accented, disappears and loses the property of intonational prominence. Based on some theoretical background, we divided the cases where deaccentuation can be placed into six categories : the first, the case that the words already mentioned are repeated in the context; the second, the case that the element can be recovered anaphorically or situationally; the third, the case that the elements are semantically weightless; the fourth, the case that the meaning of the word is empty; the fifth, the case that the elements are less informative, so that they are easy to predict; the sixth, the case that the elements are located after the focused words. Then we organized the context and the experimental sentences corresponding to each category. The utterances of Korean and English native speakers were recorded and analysed based on the ToBI system and compared to each other, in order to find out that Korean speakers can distinguish the difference within each sentence pair, and produce them with appropriate intonation similar to that of native speakers.

**Keywords:** Intonation, Deaccentuation, Focus, Pitch accent

### 1. 서 론

악센트 해지(deaccentuation)란 문장 내에서 악센트를 받을 여지가 있는 특정 구성 성분의 악센트가 사라져 억양상 돌돌리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Ladd(1980, 1996)는 담화상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나 반복되는 요소, 혹은 의미상으로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다 일반적인 요소에 악센트가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악센트 해지 현상에 대해 언급한다.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대비 고등인력 양성사업-Brain Korea 21-핵심 분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어의 악센트 분포는 초점의 분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먼저, Halliday(1967)에 따르면, 초점이란 담화 문맥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가리킨다. 새로운 정보는 곧 초점이 되어 피치 악센트로 실현되지만 구정보를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그룹은 악센트를 받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Chafe 1974; Clark 1977; Prince 1981, 1992). Terken & Hirschberg(1994)는 모든 주어진 정보가 전부 악센트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과 동일한 표면적 위치(surface position)를 갖는 구정보에 한하여 악센트 해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다(Halliday 1967, Chafe 1974, Ladd 1996). 또한, 초점은 명시적으로 언급된 구정보 뿐만 아니라 담화 문맥에서 상황적으로나 대용어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정보를 가리킨다. 담화상의 문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추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정보는 악센트를 받을 여지가 있는 내용어라 하더라도 악센트가 해지된다(Halliday 1967, Ladd 1996). 또한 Chafe(1974)는 이미 청자의 의식 속에 있는 정보는 악센트가 해지될 수 있음을 밝혔다.

Bolinger(1972)의 급진적 초점화 악센트(radical focus-to-accent) 이론에 따르면, 초점의 분포를 의미적 중요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문장의 악센트를 부여하는 것은 화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화자는 의미적으로 더 중요한 단어에 악센트를 부여하고,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에는 악센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또한, 단지 청자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의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성이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까지도 악센트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Bolinger 1972b, Ladd 1996).

Cooper et al.(1985)는 초점을 받는 단어 다음에 뒤따르는 내용어에는 의미 있는 피치의 급강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초점 단어에 뒤따르는 피치의 급강하가 억양 음운론에 바탕을 두어 분석할 때 악센트 해지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 이론들에 기반을 두고 악센트의 해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앞선 담화 문맥상에서 이미 언급된 단어가 다시 반복되어 구정보가 되는 경우, 둘째, 대용어적(anaphorically)이나 상황적(situationally)으로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 셋째, 의미적 비중이 낮은 요소의 경우, 넷째,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단어의 경우, 다섯째, 단어의 정보성이 낮거나,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섯째, 초점 다음에 위치하는 내용어의 경우로 분류하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문맥과 문장을 구성하였다. 위 여섯 가지 범주에 속하는 악센트 해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과 악센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을 쌍으로 하여, 영어 원어민 화자의 발화와 한국인 화자 발화의 f0 값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시행하였다.

## 2. 실험

본 실험은 원어민 화자가 다양한 문맥과 다양한 상황에서 악센트 해지를 구현하는지 확인하고 한국인 화자는 각 문맥에서 원어민 화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악센트를 구현하는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점 현상이 문장의 피치 악센트의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억양 음운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특히, 초점 구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악센트 해지 현상을 억양 음운론 체계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실험 1은 원어민들의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악센트 해지 현상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고 억양음운론 체계를 통해 분석하여 한국인 화자의 발화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실험 2는 한국인의 발화 실험이다.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 사이의 억양 구현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인 화자들이 각각의 문장에서 악센트 해지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여 의미에 맞는 적합한 억양을 구사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이 각각 다른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악센트 해지를 구사하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할 것이다.

## 2.1 실험 1: 원어민 발화 실험

### 2.1.1 실험 목적

본 논문의 서론에서 선행 이론을 개관하였듯이, 초점에 관한 언급이 시작된 이래, 영어 문장의 음성적 구현보다는 통사적,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초점과 악센트 이론이 대두되면서 초점과 억양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나, 이 이론들은 실제적, 실험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있지 않다. 따라서 악센트 해지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초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발화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억양 음운론의 억양 전사 체계인 ToBI 체계로 환원하고 분석하여, 원어민의 악센트 해지가 어떻게 실현되며 초점 현상이 억양의 도출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고, 초점 구조와 피치 악센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 1에서는 선행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센트 해지 현상이 실제 원어민 발화에서 분명히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억양 음운론 체계를 통해 분석하여, 이를 한국인 화자의 악센트 해지 양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는 초점과 악센트 분포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악센트의 해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앞선 담화 문맥상에서 이미 언급된 단어가 다시 명시적으로 반복되어 구정보를 발화하게 되는 경우, 둘째, 대응어적(anaphorically)이나 상황적(situationally)으로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 셋째, 의미적 비중이 낮은 요소의 경우, 넷째,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단어의 경우, 다섯째, 정보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섯째, 초점 다음에 위치하는 내용어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원어민 화자들에게 이들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문장들을 발화하도록 하여, 원어민들의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악센트 해지 현상을 관찰하고 억양음운론 체계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선행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원어민 화자들은 담화상의 문맥과 문장의 의미에 맞게 악센트를 구현하며, 악센트 해지 역시 쉽게 구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 2.1.2 실험문장

실험문장은 악센트의 해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상황별로 분류하여 A, B, C, D, E, F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문장과 문맥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한 단어, 혹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장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단어가 악센트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과 문맥을 구성하여 쌍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문장을 쌍으로 하여 제시한 이유는 각각의 발화에서 충분히 문맥을 이해하고 실제로 문맥에 맞게 초점을 인식하여 발화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부터는, 악센트가 해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을 문장 I로,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을 문장 II로 표기하도록 한다.

범주 A는 특정 어휘가 문맥 속에서 이미 한번 언급된 구정보(old information)에서 악센트 해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이다. 다음 [표 1]은 범주 A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를 보여준다.

표 1. 범주 A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

범주 A	
문장 I	문장 II
A: Is this your uncle's notebook? B: No, it's my <b>brother's notebook</b> .	A: What's this? B: It's my <b>brother's notebook</b> .
A: What happened to all the garbage? B: I took the <b>garbage out</b> .	A: Where did you go just now? (What did you throw away?) B: I took the <b>garbage out</b> .

[표 1]의 왼쪽 열에는 문장내의 특정 단어에 악센트가 해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 I을 제시하였으며, 오른쪽 열에는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 II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장의 B의 발화를 예로 들어보면, 문장 I과 문장 II 모두 It's my brother's notebook을 발화하는 것이지만 문장 I은 notebook이 구정보로 인식되어 악센트가 해지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문장 II는 notebook이 신정보로 인식되므로 피치 악센트가 부여되어 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범주 B는 범주 A와는 달리 이미 언급된 정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담화 문맥상 상황적으로나(situationally) 대응어적으로(anaphorically) 복구가 가능할 경우 악센트 해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다. 범주 B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를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범주 B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

범주 B	
문장 I	문장 II
(looking at picture of B's mother) A: Wow, She looks wonderful. B: Yeah, I'm always <b>proud of my mother</b> .	A: Whom are you proud of the most? B: I'm always <b>proud of my mother</b> .
A: Has John read "The old man and the sea?" B: No, John doesn't <b>read books</b> .	A: John is ignorant in every field. B: It's because he doesn't <b>read books</b> .

[표 2]에 제시된 첫 번째 문장의 화자 B의 발화를 예로 들어보자. 문장 I과 문장 II 모두 I'm proud of my mother라는 같은 문장이지만, 문장 I은 A화자와 B화자가 함께 사진을 보고 사진 속의 대상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my mother

는 구정보로 인식되며 악센트가 해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문장 II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my mother를 언급하는 상황이므로, my mother에 의미초점이 놓이게 되어 피치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된다.

범주 C는 Bolinger의 급진적 초점화 악센트 이론에 기반을 둔다. 급진적 초점화 악센트 이론에서는, 문장의 악센트를 부여하는 것은 화자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화자는 의미적으로 더 중요한 단어에 악센트를 부여한다고 본다. 즉, 발화에서 의미적으로 보다 강조되는 부분에는 악센트가 주어지며, 그렇지 않은 단어에는 악센트가 해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범주 C는 의미적 비중이 낮은 요소의 경우 악센트가 해지될 것을 예측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미적 비중이 보다 높은 단어를 포함한 예문들을 쌍으로 제시하였다. [표 3]은 범주 C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일부이다.

표 3. 범주 C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

범주 C	
문장 I	문장 II
A: Why do you call me? B: Because I have a <b>point to make</b> .	A: What's up? B: Listen carefully. I have a <b>point to emphasize</b> .
A: What about George? B: George has <b>plans to leave</b> . (he leaves some plans)	A: What about George? B: George has <b>plans to leave</b> . (he made plans in order to leave)

[표 3]의 위쪽에 제시된 point to make과 point to emphasize의 쌍을 비교해 보면, make는 emphasize보다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적 비중이 낮다. 따라서 make는 악센트가 해지되는 반면, emphasize는 악센트가 부여되어 발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범주 D는 발화에서 보다 의미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에 악센트가 부여되므로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단어(empty word)에는 악센트가 해지될 것으로 예측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단어 대신 일반 명사로 대치한 문장들을 쌍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4]는 범주 D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이다.

표 4. 범주 D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

범주 D	
문장 I	문장 II
A: What are those? B: Those are <b>crawling things</b> .	A: What are those? B: Those are <b>crawling insects</b> .
A: Where are you going? B: I'm going over to the <b>doctor's place</b> .	A: Where are you going? B: I'm going over to the <b>doctor's barn</b> .

[표 4]의 왼쪽 열에 제시된 things나 place와 같은 단어는 insects나 barn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와는 달리 단어 자체의 의미가 비어 있다. 따라서 단어 자체의 의미가 비어 있는 이와 같은 단어는 악센트가 해지되어 발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범주 E는 정보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의 경우, 악센트가 해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문장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어 자체가 가지는 정보성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서 악센트가 부여되어 발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들을 쌍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범주 E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를 아래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범주 E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

E 범주	
문장 I	문장 II
A: What happened? B: They <b>strangled</b> him to <b>death</b> .	A: What happened? B: They <b>hounded</b> him to <b>death</b> .
A: Where's she going? B: Jane went to the <b>movie theater</b> .	A: What's this? B: It's a kind of <b>movie pavilion</b> .

[표 5]에 제시된 첫 번째 문장쌍을 예로 들면, strangled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 death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death는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정보성은 낮아지게 되어 악센트가 해지되어 발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hounded는 단어 자체에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death는 그 자체로서 정보성을 갖게되므로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범주 F는 초점 다음에 위치하는 내용어에서 악센트가 해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문장을 구성하였다. 이 범주에서는 악센트가 부여되는 문장 II를 구성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악센트가 해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 I만을 구성하였다. 다음 [표 6]은 범주 F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일부로서 동일한 문장에서 초점이 세 가지의 위치로 달라지도록 문맥을 다르게 하여 제시하였다.

표 6. 범주 F에 속하는 실험문장의 예

Mary plays the <b>violin</b> in the <b>classroom</b> at <b>school</b> .	I wonder "who" "what" "where"
Mary rides the <b>plane</b> from <b>New York</b> to <b>Chicago</b> .	I wonder "who" "what" "from where"

[표 6]의 첫 번째 문장을 예로 들면, I wonder 'who'라는 질문을 통해 화자가 Mary에 초점을 두어 발화하게 되는 경우, 발화가 하나의 음운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mary라는 초점 단어 뒤에 뒤따르는 내용어들-plays, violin, classroom, school-의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위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한 실험문장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 1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2에 각각 사용되었다.

2.1.3 실험방법

2.1.2에서 설명한 여섯 개의 범주에 속하는 실험문장을 화자가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임의의 순서로 섞어 제시하였다. 실험은 3 명의 K 대학교 소속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피험자들은 질문과 응답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발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가능한 한 실제 대화 상황처럼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실험문장은 각각 두 번씩 발화되었다. 발화는 Sony DAT(Digital Audio Tape)와 Sony ECM-MS907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취하였으며, PitchWork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주파수 곡선을 도출하였다. Pitch Tracking은 Pierrehumbert의 억양 음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피치 악센트와 구성조와 경계성조의 위치와 종류 및 피치 범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1.4 실험결과

원어민들은 악센트의 해지를 예측한 문장 I에서는 높은 비율로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하였으며, 악센트 부여를 예측한 문장 II에서는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1]에 제시한 왼쪽 그래프는 원어민 화자 세 명의 발화 중 악센트의 해지를 예측한 문장에서의 악센트 해지 비율의 평균값을 각각의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1]에서 제시한 오른쪽 그래프는 원어민 화자 세 명의 발화 중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에서의 악센트 부여 비율을 각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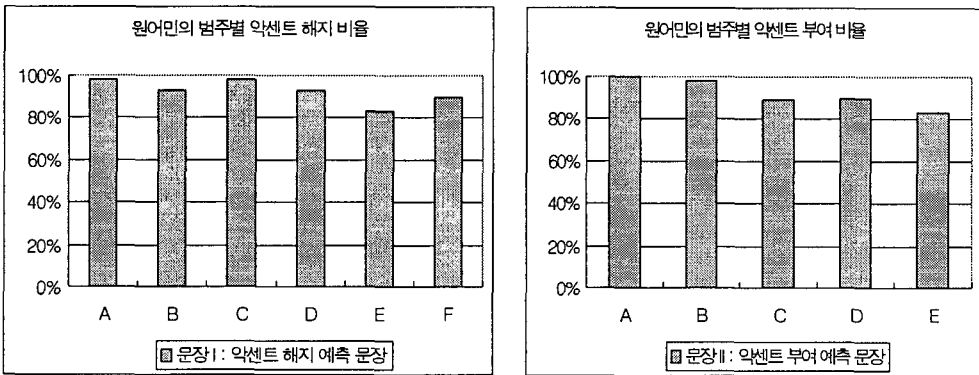


그림 1. 문장 I에서의 원어민의 범주별 악센트 해지 비율(왼쪽)과 문장 II에서의 원어민의 범주별 악센트 부여 비율(오른쪽)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악센트가 해지 될 것으로 예측되던 문장 I의 경우, 범주 A에서는 98%, 범주 B는 93%, 범주 C는 98%, 범주 D는 93%, 범주 E는 83%, 범주 F는 90%의 악센트 해지 비율을 나타내었다. A, B, C, D, E 범주에서는 악센트 해지를 예측한 단어 앞에 중간구나 억양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지만 F 범주의 경우에는 실험 문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간구나 억양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F 범주에 속하는 한 실험문장을 예로 들면, Mary plays the violin in the classroom at school이라는 문장에서 Mary에 초점이 부여되고 violin 뒤에서 중간구가 나타난 경우, Mary 다음에 위치하는 내용어인 plays나 violin에 악센트가 해지되지만 중간구(IP)가 나타난 다음에 위치하는 단어인 classroom에는

다시 악센트가 나타나게 된다. 즉 Mary에 부여된 초점은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중간구나 억양구가 설정된다면 새로운 구가 설정되기 이전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혹은 초점 바로 다음의 내용어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모두 악센트 해지를 올바르게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점 단어 Mary 바로 다음에 중간구나 억양구가 설정되면 피치의 범위가 재설정 되므로, 초점으로 인한 악센트 해지 현상이 중간구를 넘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악센트 해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초점 바로 다음 위치에 중간구가 설정되는 경우를 발화 수에서 제외하였으며, 초점과 악센트 해지를 겪을 단어가 하나의 음운 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원어민의 발화는 이처럼 악센트의 해지가 예측되는 곳에서 평균 95%의 높은 비율로 (총 357 개의 발화 중 338 개)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는 원어민 화자들이,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던 문장 II에서 각 범주별로 100%, 98%, 89%, 90%, 83%의 악센트 부여 비율을 나타내었음을 보여준다. 즉, 악센트를 부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에서는 평균 92%의 높은 비율(총 306 개의 발화 중 280 개의 문장)로 악센트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원어민의 실제 발화의 억양 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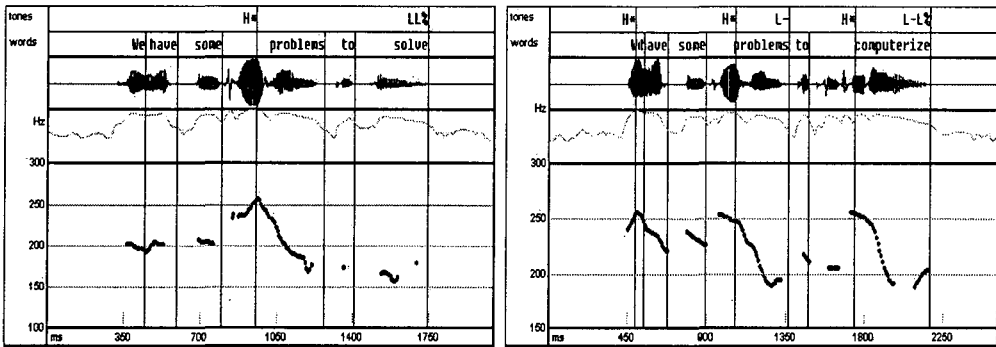


그림 2. 원어민의 문장 I 발화의 F0 곡선(왼쪽)과 문장 II 발화의 F0 곡선(오른쪽)

[그림 2]는 문장 I과 문장 II의 원어민 발화 피치 곡선이다. 의미적 비중이 낮은 단어를 포함하여 악센트가 해지될 것으로 예측하였던 문장 I의 solve에는 악센트가 해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의미적 비중이 높은 단어인 computerize를 포함한 문장 II에서는 H\* 피치 악센트가 구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 그래프와 억양곡선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원어민들은 구정보나 복구 가능한 정보, 의미적 비중이 낮은 정보, 비어있는 단어, 정보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단어, 초점 다음에 위치하는 내용어 모두에서 악센트 해지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였다. 두 개의 문장쌍 간의 비교를 통해서, 원어민들은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해야 할 상황과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여야 할 상황을 구분하고, 문맥에 알맞게 악센트를 위치시키거나 해지시킨다는 사실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2.2의 실험에서 한국인들의 악센트 해지 양상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 2.2 실험 2: 한국인 발화 실험

### 2.2.1 실험 목적

실험 2는 한국인 화자들이 각각의 경우에 악센트 해지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여 의미에 맞는 적합한 억양을 구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 1의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문장에서 나타난 악센트 해지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인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억양상의 특징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이 중급과 상급으로 각각 다른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악센트 해지를 구사하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인 화자의 발화가 원어민 화자의 악센트 해지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한국어의 억양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악센트 해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여섯 가지 범주 중 어떤 범주에서 악센트를 가장 잘 해지시키는지, 반대로 어떤 범주에서 악센트 해지를 시키는 비율이 가장 낮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실험 1의 결과 원어민은 악센트의 해지가 예측되는 곳에서 평균 95%의 높은 비율로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하였으며, 이 문장들과 쌍으로 제시된 악센트를 부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에서는 평균 92%의 높은 비율로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였다. 원어민들이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한 문맥에서 한국인들도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원어민들이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한 문맥에서 한국인들도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2.2.2 실험 문장

실험 2에서 사용한 실험문장은 원어민의 발화 실험인 실험 1에서 사용한 문장과 동일하다.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센트 해지가 예측되는 여섯 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장과 문맥을 구성하였으며,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들과 함께 문장쌍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2.2.3 실험 방법

여섯 개의 범주에 속하는 실험 문장쌍들을 화자가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임의의 순서로 섞어 제시하였다. 특히 악센트가 해지될 것을 예측하는 문장과, 이에 해당하는 문장쌍인 악센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이 순서적으로 연속되어 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문장쌍들이 연속되어 제시되었을 경우 피험자들이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실험은 K 대학교와 D 대학교에 재학중인 4 명의 학부생과 4 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한국인 피험자들은 TOEIC이나 TOEFL 성적, 또는 기타 영어 성적이나 영어 구사 능력에 따라 상급 수준의 화자와 중급 수준의 화자로 구분하였다. 실험 문장을 읽고 충분히 이해한 후 발화하여야 하므로 단어나 문맥에 대한 이해 능력이 낮은 하급 수준의 화자를 피험자에서 배제하고 중급 및 상급 화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네 명은 영어 능력이 상급에 해당하는 피험자로, 다른 네 명은 영어 능력이 중급에 해당하는 피험자로 구분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이 질문과 응답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발화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가능한 한 실제 대화 상황처럼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실험문장은 각각 두 번씩 발화되었다. 실험 2에서 화자 일인당 발화 수는 225 개이며 따라서 한국인 화자의 총 발화 수는 1,800 개이다. (225×8 명=1,800 개) 발화는 Sony DAT(Digital Audio Tape)와 Sony ECM-MS907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취하였으며, PitchWork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주파수 곡선을 도출하였다.

#### 2.2.4 실험 결과

한국인들은 악센트 부여를 예측한 문장 II에서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악센트의 해지를 예측한 문장 I에서는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원어민 발화와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그림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왼쪽 그래프는 한국인 화자 여덟 명의 발화 중 악센트의 해지를 예측한 문장 I에서의 악센트의 해지 비율을 각각의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3]의 오른쪽 그래프는 한국인 화자 여덟 명의 발화 중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 II에서의 악센트 부여 비율을 각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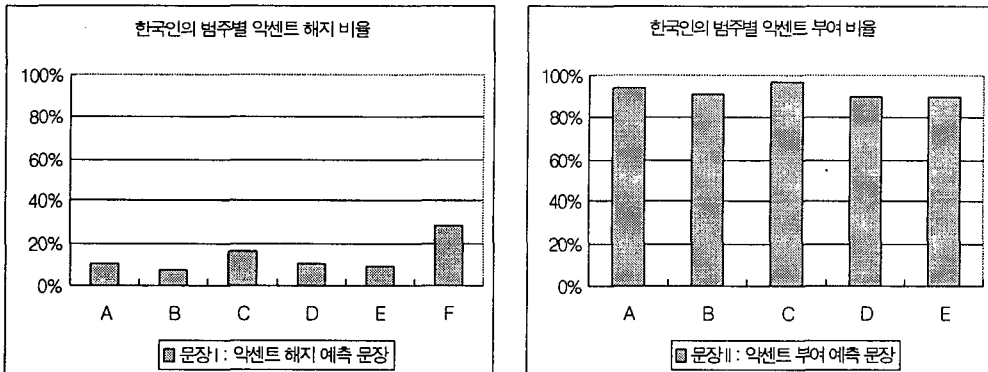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인의 문장 I에서의 범주별 악센트 해지 비율(왼쪽)과 문장 II에서의 범주별 악센트 부여 비율(오른쪽)

[그림 3]의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악센트가 해지 될 것으로 예측되던 문장 I의 경우, 범주 A에서는 10%, 범주 B는 7%, 범주 C는 16%, 범주 D는 10%, 범주 E는 9%, 범주 F는 28%의 악센트 해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국인의 발화는 이처럼 악센트의 해지가 예측되는 문장에서 평균 13%의 낮은 비율로 (총 933 개의 발화 중 125 개) 악센트를 해지시켰으며 87%의 발화에서 악센트 해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범주별 악센트 해지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범주 F의 악센트 해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범주 C의 악센트 해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범주 F는 대화 문맥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여 발화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범주보다 쉽게 악센트 해지를 구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정보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범주 A보다 상황적,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범주 B의 악센트 해지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범주 A와 B에 나타나는 악센트 해

지 비율을 비교하였다. 범주 A에서는 11%, 범주 B는 6%의 악센트 해지 비율을 보여, 범주 B에서의 악센트 해지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던 문장 II의 경우, 각 범주별로 94%, 91%, 97%, 90%, 90%의 악센트 부여 비율을 나타내었다. 악센트를 부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에서는 평균 93% 높은 비율(총 816 개의 발화 중 759 개의 문장)로 악센트를 부여하였다.

악센트가 해지될 것을 예측한 문장 I의 전체 발화 중 13%에만 악센트 해지가 나타났고 87%에는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문장에서 문맥에 알맞게 악센트를 해지시키거나 부여하여 발화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3%(125 개)의 문장에서 나타난 악센트 해지 현상이 문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악센트 해지를 시킨 문장들을 문장 II의 해당 쌍과 비교해 보았다. 악센트가 해지된 125 개의 문장 중 31 개(악센트 해지된 문장 중 25%)는 악센트가 부여될 것을 예측한 문장 II의 해당 쌍에서도 악센트를 해지시켜 발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31 개의 문장에서 나타난 악센트 해지 현상은, 화자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여 발화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습관적으로 특정 단어에 악센트를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화자의 임의로 악센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한국인 발화의 각 범주별 실제 억양 곡선으로서, 왼쪽은 악센트 해지를 예측한 문장 I의 피치곡선이며, 오른쪽은 악센트 부여를 예측한 문장 II에서의 피치곡선이다. 한국인 화자들은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악센트 해지를 시키지 못하고 모든 내용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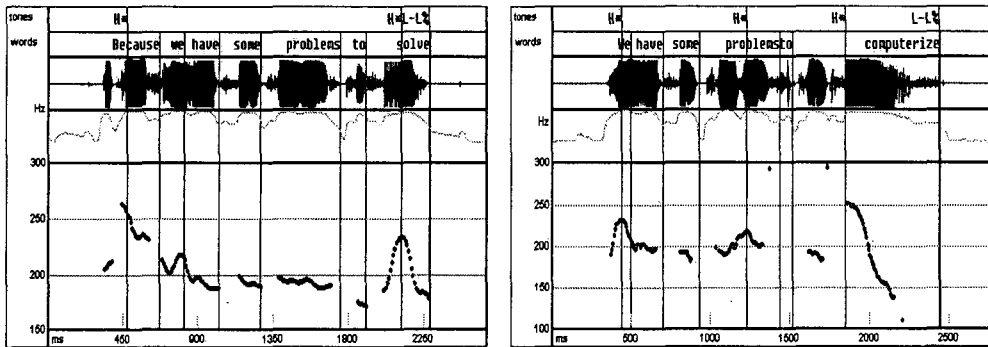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인의 문장 I 발화의 F0 곡선 (왼쪽) 문장 II 발화의 F0곡선 (오른쪽)

문장 I(왼쪽)은 의미적 비중이 낮은 단어를 포함하므로 악센트가 해지될 것을 예측하였으나, 한국인의 발화에서는 solve에 H\* 피치 악센트가 구현되었다. 또한, 의미적 비중이 높은 단어를 포함하여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 II(오른쪽)에서 역시 H\* 피치 악센트가 구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각각 다른 한국인 화자들이 악센트 해지를 구사하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 화자들을 영어 능력에 따라 상급 수준의 화자 네 명

과 중급 수준의 화자 네 명으로 구분하였다. 영어 능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TOEFL이나 TOEIC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타 영어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영어실력도 참조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한국인 상급화자와 중급화자가 각 범주별로 악센트 해지를 구현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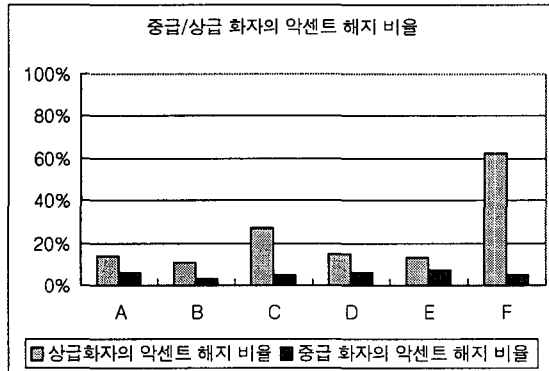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인 상급 및 중급 화자의 악센트 해지 비율

[그림 5]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상급화자와 중급화자의 악센트 해지 비율은 모두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어 이들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급화자가 모든 범주에서 중급화자보다 악센트 해지를 다소 잘 구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급 수준의 피험자는 각 범주별로 14%, 11%, 27%, 15%, 13%, 57%의 비율로 악센트를 해지시켰으며, 중급 수준의 피험자는 6%, 3%, 5%, 6%, 7%, 5%의 비율로 악센트를 해지시켰다. 중급 수준의 화자는 각 범주별 악센트 해지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 상급 화자는 각 범주별 악센트 해지 구현 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상급 수준의 화자는 범주 F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악센트 해지를 구현하였으며, 다음으로 범주 C에서도 다소 높은 악센트 해지 비율을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범주 F는 대화 문맥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여 발화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맥의 차이를 인식하고 강조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발화한 상급 수준의 화자에 한해서는 다른 범주보다 쉽게 악센트 해지를 구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 2.3 논의: 실험 1과 실험 2의 비교

원어민들은 구정보나 복구 가능한 정보, 의미적 비중이 낮은 정보, 비어있는 단어, 정보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단어, 초점 다음에 위치하는 내용어 모두에서 악센트 해지를 자연스럽게 구사한 반면, 한국인들은 여섯 개 범주 모두에서 악센트 해지를 구사하지 못하였다. 명시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반복되어 구정보로 인식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악센트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 범주 A, B에서 원어민은 문맥을 정확히 반영하고 구정보와 신정보를 파악하여 발화하는 반면, 한국인은 이러한 정보구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 같은 패턴으로 발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의미적 중요성에 따라 악센트 부여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주 C, D, E에 있어서, 원어민들은 어떠한 단어의 의미적 비중이 높고 낮은지, 또 어떤 단어가 비

어있는 단어인지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인의 경우는 그러한 판단 기준이 내재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악센트의 부여나 해지와 관련된 초점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문장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모든 내용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거나, 특히 문장 마지막에 있는 성조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음 그림은 원어민과 한국인이 같은 문장을 각각 다른 억양을 통해 발화한 실제 피치 곡선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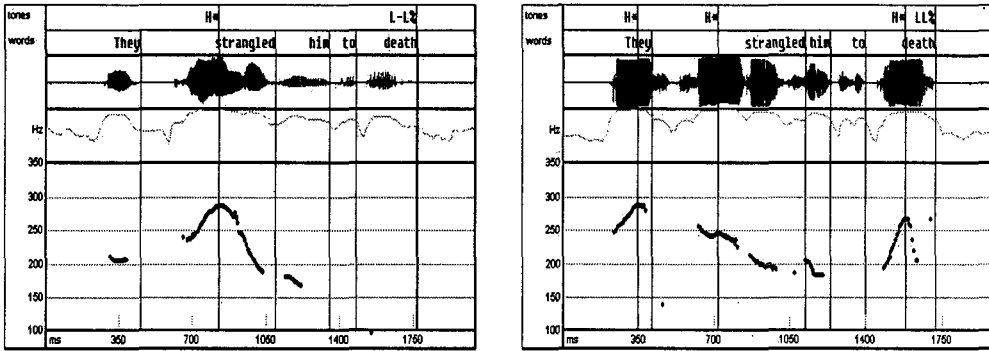


그림 6. 악센트 해지가 예측되는 문장에서의 원어민과 한국인의 억양곡선

[그림 6]은 악센트가 해지되어 발화될 것으로 예측한 문장에서의 원어민과 한국인의 억양 곡선이다. 원어민은 단어 death에 악센트를 해지 시켜 올바른 억양을 구현한 반면, 한국인은 H\*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여 원어민의 피치 곡선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문장 I에서의 한국인과 원어민의 악센트 해지 비율과 문장 II에서의 악센트 부여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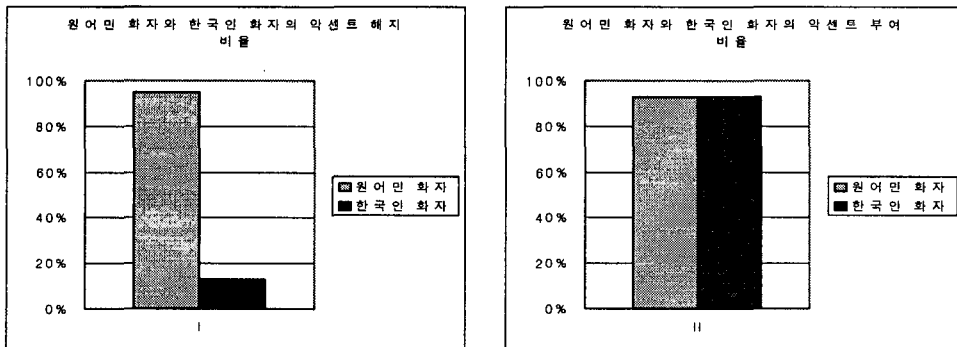


그림 7. 문장 I에서의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악센트 해지 비율 비교(왼쪽) 문장 II에서의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악센트 부여 비율 비교(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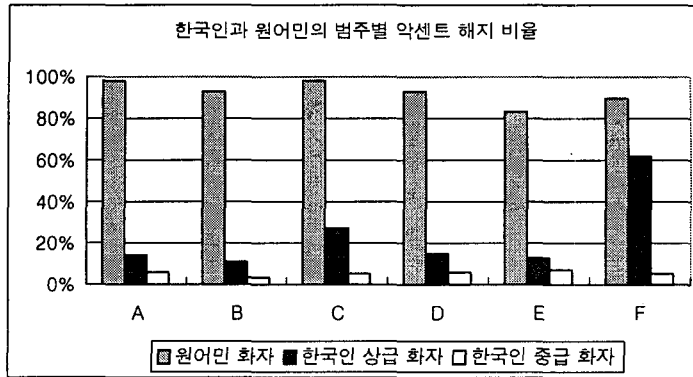


그림 8. 원어민과 한국인의 중/상급 화자의 범주별 악센트 해지 비율

[그림 7]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악센트 해지를 예측한 문장 I (왼쪽 그래프)에서 원어민이 95%의 악센트 해지 비율을 보인 반면, 한국인은 13%의 악센트 해지 비율을 보여 원어민과 한국인의 발화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한 문장 II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원어민과 한국인의 발화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93%에서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한 것은, 이들이 악센트 분포와 관련된 초점 구조를 충분히 인식한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문장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모든 내용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거나, 특히 문장 마지막에 있는 성조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8]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는 원어민의 악센트 해지 비율과 한국인의 레벨별 악센트 해지 비율을 각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범주에 있어서 원어민과 한국인의 악센트 해지 비율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급화자의 악센트 해지 비율이 중급화자의 악센트 해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원어민과 비교했을 경우,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 한국인 피험자들이 정보 구조와 초점의 위치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치 악센트의 유무로 표시하지 못하고 목소리의 강도를 세게 하거나 작게 하여 초점의 유무를 나타내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상급화자의 경우 악센트를 해지시켜야 하는 문장 I의 문맥에서 악센트 해지 대신 !H\*를 구현하였다. 이는 문장 I에서 다른 피치 악센트보다 피치의 폭을 줄여 발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인 화자들이 악센트를 완전히 해지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음역을 줄여 가는 것으로써 악센트 해지 현상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한국인들의 발화에서는 대부분 악센트 해지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악센트 해지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한국어 억양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Ueyama & Jun(1998)이나 Jun & Lee(1998)는 영어의 악센트 해지와 유사한 현상인 한국어의 음운구 해지(dephrasing)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어의 억양은 LHLH의 성조 패턴을 기본으로 하여 음절수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되는 악센트구(AP)로 구성된다. 여러 개의 악센트구가 연쇄될 경우, 한 악센트구가 초점을 받게 되면, 뒤따르는 악센트구가 초점받은 선행 악센트구에 포함되는 현상이 음운구 해지 현상이다. 음운구 해지 현상은 초점받은 악센트구에 후행하는 악센트구에서 나타

날 뿐만 아니라, 문맥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나 혹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보성이 낮은 요소들에서도 일어난다(Ladd, 1996). 이처럼 한국어의 억양 체계에 악센트 해지 현상과 매우 유사한 음운구 해지 현상이 있으며, 또 음운구 해지를 일으키는 조건들이 악센트 해지를 일으키는 상황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악센트 해지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악센트 해지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한국어 억양체계로부터 부정적 전이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피치 악센트 언어가 아니므로 한국인들은 영어 발화에서 피치 악센트의 유무로써 악센트의 분포 및 악센트 해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피치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에서 한국인들은 높은 비율로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여 원어민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들이 구현한 악센트는 원어민이 구현한 악센트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원어민들은 주로 피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악센트를 구현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피치의 상승보다는 발화의 강도를 통해 악센트를 구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인들은 피치 악센트의 부여와 해지 모두에서 원어민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의 억양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피치 악센트를 다루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영어의 억양 체계는 피치 악센트를 기본으로 하며, 한국어는 LHLH의 성조 패턴을 갖는 악센트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모국어의 억양체계에 나타나지 않는 피치 악센트를 해지시키는 방식을 알지 못하며,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원어민과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 결 론

악센트 해지란 문장 내에서 악센트를 받을 여지가 있는 특정 구성 성분의 악센트가 사라져 억양상 돌돌리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초점과 악센트 해지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악센트 해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악센트 해지가 구현될 수 있는 문맥과 대조쌍을 이루도록 악센트가 부여될 수 있는 문맥을 함께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즉, 동일한 실험 문장을 악센트가 해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맥과 함께 한번 제시하고,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맥과 함께 다시 한번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원어민 화자들에게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문장들을 발화하도록 하여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원어민들의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악센트 해지 현상을 관찰하고 억양운론 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원어민 화자들은 담화상의 문맥과 단어의 의미적 비중에 따라 적합하게 악센트 해지를 구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악센트가 부여되는 문맥에서의 발화와는 억양상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쌍을 이루는 문장이 각 문맥이나 의미적인 비중에 따라 각각 다른 억양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은 영어의 억양이 의사 소통 시 의미전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원어민 실험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한국인들이 원어민과 유사하게 악센트 해지를 구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어민들이 높은 비율로 악센트 해지를

구사한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전체 발화의 13%에서 악센트를 해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인들은 악센트 해지가 예측되는 문맥에서나 악센트 부여가 예측되는 문맥에서 모두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내용어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였으며, 특히 문맥과는 상관없이 문장 마지막 내용어에 위치하는 성조 음절(tonic syllable)에는 거의 대부분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한국인들의 발화에서는 대부분 악센트 해지를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문맥이나 의미적 비중에 알맞게 악센트를 해지시키지 못하고 거의 모든 내용어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한다는 점은 억양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특히, 한국인들이 문맥에 상관없이 모든 문장에서 마지막 내용어의 성조 음절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였다는 점은 대부분의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억양 표기가 마지막 단어에 피치의 상승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영어교과서에서는 억양을 제시할 때 문맥과 함께 제시하지 않고 한 문장만을 독립적으로 표기하고 단계식 표기법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문장이라도 문맥이나 상황, 문장이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성이나 혹은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비중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른 억양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맥 없이 억양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 초점 구조가 개입되는 경우 억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맥을 인식하고 문맥에 맞게 발화하도록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문맥 없이 제시된 교과서의 억양 표기를 통해 오직 한 가지의 억양 패턴만을 접해 온 것이다. 문맥에 관련 없이 동일한 억양 패턴으로 문장을 구현할 경우, 상황적으로 어색한 억양을 사용하게 되어, 원어민과의 의사 소통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억양 교육에 있어서 올바른 억양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구조적, 혹은 표면적으로 동일한 문장이라도 문맥이나 상황, 혹은 문장이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성,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비중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른 억양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맥과 함께 억양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99. "억양 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6, 119-143.  
 \_\_\_\_\_. 2000. "억양 음운론에 의한 영어 의미 분석." *음성과학*, 7(3), 109-125.  
 Beckman, M. & J. Hirschberg. 1994. "The ToBI Annotation Conventions" Ms. and accompanying materials, Ohio State University.  
 Bolinger, D. 1972. *Intonation*. Harmondsworth: Penguin.  
 \_\_\_\_\_. 1972b. "Accent is predictable if you're mind-reader." *Language*, 48, 633-44.  
 \_\_\_\_\_.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Chafe, W. 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111-33.  
 Cooper, W. E., S. J. Eady & P. R. Mueller. 1985. "Acoustical Aspects of Contrastive Stress in Question-Answer Contexts." *JASA*, 77, 2142-2156.  
 Eady, S. J. & W. E. Cooper. 1986. "Speech Intonation and Focus Location in Matched



- Statements and Questions." *JASA*, 80, 402-415.
- Eady, S. J., W. E. Cooper, G. V. Klouda, P. R. Mueller & D. W. Lotts. 1986. "Acoustical Characteristics of Sentential Focus: Narrow vs. Broad and Single vs. Dual Focus Environments." *LgPs*, 29, 223-51.
- Halliday, M. A. K. 1967.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Mouton.
- Jun, S.-A.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 Jun, S.-A. & H.-J. Lee. 1998. "Phonetic and Phonological Markers of Contrastive Focus in Korean." *In the Proceedings of ICSLP 98*, Sydney, Australia.
- Ladd, D. R. 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Evidence from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rehumbert, Janet and Julia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71-311.
- Pierrehumbert, Janet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thesis, MIT.

접수일자: 2002. 4. 14.

게재결정: 2002. 6. 5.

▲ 김소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pharac2@hanmail.net

▲ 강선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dearsunny77@hanmail.net

▲ 옥유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oer20177@dreamwiz.com

▲ 김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keehokim@korea.ac.kr

## &lt;부 록&gt;

## A-I

- 1) A: How about going to a movie?
- 2) A: Is this your uncle's notebook?
- 3) A: Who came with Manny?
- 4) A: This article is in German
- 5) A: What happened to all the garbage.
- 6) A: Do you like bananas?
- 7) A: Was it a sad story?
- 8) A: Who baked the bread?

- B: It's okay, if it's a good movie.  
 B: No, it's my brother's notebook.  
 B: Anna came with Manny.  
 B: I can't read German.  
 B: I took the garbage out.  
 B: Yes, I like green bananas better.  
 B: No, it's an interesting story.  
 B: John baked the bread.

## B-I

- 1) A: Has John read "The old man and the sea"?
- 2) A: What did you buy?
- 3) A: What did you do last vacation.  
 B: I visited my brother (James).
- 4) A: Would you like to have salmon steak?
- 5) A: What did the critic say about "Titanic"?
- 6) A: Have you ever heard "Beatles"?
- 7) (looking at picture of B's mother)  
 A: Wow, She looks wonderful.

- B: No, John doesn't read books.  
 B: I bought a poodle,  
 because I've always wanted a dog.

A: Wow, I haven't seen James  
 for a long time.

- B: No, I don't eat fish.  
 B: They say it's a great movie.  
 B: Yes, but I don't like that band.

B: Yeah, I'm always proud of my mother.

## C-I

- 1) A: Why do you call me?
- 2) A: What are you doing?
- 3) A: Are you busy today?
- 4) A: What's that?
- 5) A: Why do you look so busy?
- 6) A: What do you have?
- 7) A: Why do you call me?
- 8) A: What does she looks like?
- 9) A: What's there in the library?
- 10) A: Why do you call me?
- 11) A: What about George?
- 12) A: Is Mary busy today?
- 13) A: What do you have?
- 14) A: Sir, I need to take counsel with you.

- B: Because I have a point to make.  
 B: We are just talking.  
 Because we have some problems to solve  
 B: Yes, I have a lot of works to do.  
 B: That's a road to take.  
 B: There are too many topics to cover.  
 B: We have lots of beverages to drink.  
 B: Let's go shopping. We need some  
 food to eat.  
 B: She seems to have lots of clothes  
 to wear.  
 B: There are plenty of books to read.  
 B: I want to go shopping for some  
 groceries to get.  
 B: George has plans to leave.  
 (he left some plans)  
 B: Mary has some lessons to get.  
 B: I've got these papers to read.  
 B: Wait for a moment.  
 First, I have a boy to see.

## D-I

- 1) A: What are those?
- 2) A: What have you done?
- 3) A: Where are you going?
- 4) A: Why was he arrested?
- 5) A: Why are you doing it?
- 6) A: What's that?
- 7) A: When did it happen?
- 8) A: How was the weather?
- 9) A: How's it going?
- 10) A: What are these?
- 11) A: What was that?
- 12) A: What did he give to you?
- 13) A: How long does it take to accomplish your work?
- 14) A: What about James?
- 15) A: What about Koreans?

- B: Those are crawling things.  
 B: I've got to go see a guy.  
 B: I'm going over to the doctor's place.  
 B: He was arrested because he killed  
 a man.  
 B: I'm doing it for John's sake.  
 B: That's a fascinating stuff.  
 B: It was during a rainy spell.  
 B: It was a cold snap.  
 B: It was boring though it's the first period.  
 B: Those are my essential goods.  
 B: It was a very astonishing fact.  
 B: He gave me a twenty-five cent piece.  
 B: We did it in no time.  
 B: James is a very friendly person.  
 B: Koreans are industrious people.

**E-I**

- |                               |   |
|-------------------------------|---|
| 1) A: What happened?          | B: They strangled him to death.                         |
| 2) A: What did Mary have?     | B: Mary had clams for dinner.                           |
| 3) A: Where are you going?    | B: We go to school for classes                          |
| 4) A: What's this?            | B: It's a geranium plant.                               |
| 5) A: What did he break       | B; He accidently broke the car window                   |
| 6) A: Where's she going?      | B: Jane went to the movie theater.                      |
| 7) A: What do you search for? | B: I search reference book(volume) for more information |

**F.**

- 1) **Mary plays the violin in the classroom at school.**  
I wonder "who", "what", "where", "where"
- 2) **Mary rides the plane from New York to Chicago.**  
I wonder "who", "what", "from where", "to where"
- 3) **The train is departing from German on Monday.**  
I wonder "which one", "was it arriving?", "from where", "when"
- 4) **A burglar stole some money at the bank in the evening.**  
I wonder "who", "what", "where", "when"
- 5) **A car hit the girl at the intersection this morning.**  
I wonder "which one", "whom", "where", "when"
- 6) **John fight with James for the championship of the contest.**  
I wonder "who", "with whom", "for what", "of which"
- 7) **John read novel in his room every Monday.**  
I wonder "who", "what", "where", "when"

**A-II**

- |  |                                |
|--|--------------------------------|
| 1) A: What did you do last sunday?         | B: I saw a good movie.'        |
| 2) A: What's this?                         | B: It's my brother's notebook. |
| 3) A: What happened?                       | B: Anna came with Manny.       |
| 4) A: Which language can't you read?       | B: I can't read German.        |
| 5) A: Where did you go just now?           | B: I took the garbage out.     |
| 6) A: What kind of fruit do you like best? | B: I like green bananas.       |
| 7) A: What are you listening to?           | B: It's an interesting story.  |
| 8) A: What did John bake?                  | B: John baked the bread.       |

**B-II**

- |   |  |
|---|--|
| 1) A: John is ignorant in every field.              | B: It's because he doesn't read books. |
| 2) A: What do you want to buy?                      | B: I always wanted a dog.              |
| 3) A: Who makes you stay here for such a long time? | B: Oh, I haven't met James yet.        |
| 4) A: What kind of food you don't like?             | B: I don't like fish.                  |
| 5) A: What did they say?                            | B: They say it's a great movie.        |
| 6) A: Why don't you listen to the music?            | B: Oh, I don't like that band.         |
| 7) A: Whom are you proud of the most?               | B: I'm proud of my mother.             |

**C-II**

- |  |   |
|--|---|
| 1) A: What's up?                             | B: Listen carefully.<br>I have a point to emphasize.                      |
| 2) A: What are you doing?                    | B: We are working now.<br>We have some problems to computerize.           |
| 3) A: Are you busy today?                    | B: Yes, I'm very busy.<br>I have a lot of works to start.                 |
| 4) A: Let's turn left, and then go straight. | B: That's a road to abandon.<br>We should follow the other way.           |
| 5) A: Why do you look so busy?               | B: There are too many topics to elucidate.                                |
| 6) A: What do you do?                        | B: We have lots of beverages to transport.                                |
| 7) A: What do you have?                      | B: We have some food to reserve.  |
| 8) A: Is Mary busy now?                      | B: She has lots of clothes to iron.                                       |
| 9) A: You look so busy.                      | B: We have plenty of books to display.                                    |
| 10) A: May I help you?                       | B: Yes, We have some groceries to deliver.                                |
| 11) A: What about George?                    | B: George has plans to leave.<br>(he made plans in order to leave)        |
| 12) A: Why does Mary call her governess.     | B: Maybe, Mary has some lessons to cancel.<br>She looks very tired today. |

- 13) A: What do you have?  
14) A: Sir, I need to take counsel with you.

## D-II

- 1) A: What are those?  
2) A: What have you done?  
3) A: Where are you going?  
4) A: Why was he arrested?  
  
5) A: Why are you doing it?  
6) A: What's that?  
7) A: When did it happen?  
8) A: How was the climate during the vacation?  
9) A: How's it going?  
10) A: What are these?  
11) A: What did you get?  
12) A: What did he give to you?  
13) A: How long does it take to accomplish your work?  
14) A: What about James?  
15) A: What about the ants?

## E-II

- 1) A: What happened?  
2) A: What did Mary have?  
3) A: Where are you going.  
4) A: Who is he?  
5) A: What did he break?  
6) A: What's this?  
7) A: What's this?

- B: I've got these papers to declassify.  
B: Wait for a moment,  
First I have a boy to punish.

- B: Those are crawling insects.  
B: I've got to go see a friend.  
B: I'm going over to the doctor's barn.  
B: He was arrested because he killed  
a policeman.  
B: I'm doing it for John's welfare.  
B: That's a fascinating perfume.  
B: It was during a rainy weekend.  
B: It was a cold winter.  
B: It was boring though it's the first lecture  
B: Those are my essential cosmetics.  
B: I heard an astonishing report.  
B: He gave me a twenty-five cent coin.  
B: We did it in twenty minutes.  
B: James is a friendly neighbor.  
B: The ants are industrious insects.

- B: They hounded him to death.  
B: Mary had clams for her snack.  
B: We go to the school for meeting.  
B: He's an FBI plant.  
B: He accidentally broke the cottage window.  
B: It's a kind of movie pavilion.  
B: It's a kind of reference directory.